

기감 동대위 “가처분 인용됐어도 이동환 여전히 출교 상태”

25일 긴급 기자회견 갖고 입장 발표
가처분, 감리교 ‘교리와 장정’ 무시한 것
인용된 건 연회 선고, 총회 선고는 유지
이동환 담임목사 복직 환영식은 난센스

최근 법원이 이동환 목사에 대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경기연회 출교 판결의 효력을 정지한 것에 대해 기감 제35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위원장 김찬호 목사, 이하 동대위)가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동대위는 이날 발표된 성명에서 “지난 2023년 12월 8일,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이동환에게 출교를 선고했다. 이에 이동

환은 총회 재판부에 상소했지만, 2024년 3월 4일, 총회 재판부는 상소를 기각하고 출교를 확정했다”며 “이동환은 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경기연회 출교 선고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고 최근 인용됐다”고 결과를 설명했다.

동대위는 “이는 종교단체 내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교적 자율권 보장’을 위해

교단의 내부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 내부의 ‘교리와 장정’을 무시한 것이고 대한민국 6만여 교회의 법을 멸시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따라서 수원법원에서 경기연회 출교 선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어도, 감리교회에서 이동환의 출교는 해지된 것이 아니고 계속 유지된다”며 “이는 총회 재판부의 상소심 기각과 출교 확정 선고가 유지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대위는 “그런데도 이동환은 자신이 선기던 영광제일교회의 담임목사 복직 환영식을 가졌는데, 이것은 난센스”라며 “그는 여전히 감리교회에서 출교된 상태에



기감 동성애대책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이 25일 진행되고 있다.

다. 이동환과 그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복직 환영식을 가진다고 복직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리교 본부에 이동환의 자격을 몰아서 출교를 확인하고 경기연회

감독에게 이동환의 출교가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소속 지방과 교회에 행정명령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는 동대위는 “우리 감리교회는 성경의 진리와 교리와 장정에 근거하여 동성애 지지를 받

대한다”고 했다.

또한 “감리교회는 동성애자들이 동성애가 죄인 것을 알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한다. 그러나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축복하는 것은 반성경적이며 교리와 장정에 반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라고 했다.

이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우리 감리교회 교리와 장정은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법과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동대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경과 교리와 장정을 수호해 거룩한 감리교를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2면 김진영 기자

한기총, “종교다원주의·차별금지법 배척” 정강정책 추진

25일 임원회 열고
주요 안건 의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가 25일 제35-4차 긴급 임원회의를 정강정책을 추진하는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먼저 이날 추진된 한기총 정강정책은 한기총이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지지하며 수호한다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배척한다 △동성애를 철저히 배척한다 △선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배척한다 △국가의 안전과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적극 지지한다 △보수 신학과 신앙을 지지하는 모든 교단 및 교회와 협력해 대한민국의 올바른 신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이에 대해 “이미 교계와 사회에 알려왔던 것인데, 한기총의 공식 정강정책으로 공표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한국교회에 한 번 더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정강정책은 한기총의 신앙고백이나 마찬가지로 다. 보수교단들이 결집하는 하나의 계기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회장은 또 “한기총을 한국 기독교의 신앙으로 불러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이날 질서위원회 상정 안건을 가



한기총 제35-4차 긴급 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진영 기자

결했다. 질서위는 공갈미수, 배임수재 혐의로 한기총 사무총장 김정환 목사가 고발했지만 경찰에서 불송치(혐의 없음)로 결정된 것과 관련, 고발인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해 임원회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고발인 이모 목사는 이미 제명돼 한기총과 관련이 없는 자임을 확인하고, 추가 징계 역시 제명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김모 목사는 한기총이 과거 내부질차를 통한 이의 제기 없이 사회법정 혹은 경찰-검찰에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 징계에 3배의 징계를 추가하기로 한 것을 적용해 기존 징계(3년 자격정지)의 3배인 9년 자격정지 징계를 하기로 했다. 또 오모 목사와 함께 고소한 김모 목사는 이미 제명돼 한기총과 관련이 없는 자임을 확인하고, 김모 목사는 한기총

회원이 아니므로 역시 한기총과 관련이 없는 자임을 확인했다.

이 밖에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은혜와진리교회에서 한기총 8.15 기념예배를 드리기로 했으며, 함동근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광화문총회)를 공동회장으로, 박철수 목사(아시아복음선교회)를 공동부회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을 찾아가 돕는 활동을 펼치기로 했고, 오는 8월 29일 '2024 한기위 대표회장배 불림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전선거에 부정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7월 31일과 8월 1일 서울 청량리와 영등포에서 노숙인과 독거무의탁 어르신들을 위한 급식 및 봉사활동을 하기로 했다. 김진영 기자

대법원 “코로나 당시 교회 집합제한 조치 정당”

보건복지부 장관·서울시장 상대 소송 상고 기각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종교시설에 내려졌던 집합제한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했던 교인들의 호소가 끝내 법원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서울 지역 교회 담임목사 및 교인들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집합제한 조치 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25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지난 2020년 8월, 당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방역당국은 종전보다 강화된 4단계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교회에 대해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했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같은 조치를 했다.

이에 법적 소송을 제기한 교인들은 집합제한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합제한 처분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 즉,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집합제한 처분을 대하는 방식에 관하여 기독교 내부에서도 다양한 이견이 있다”고 했다.

또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는 감염된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것과 감염된 나로부터 타인을 보호하

려는 양면적 성격을 갖는다”며 “집합제한 처분은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배려하려는 목적의 것이고, 이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근간으로 하는 종교의 본질’에도 부합한다. 집합제한 처분이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교인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이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는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예자연 예배위원장이자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인 손현보 목사는 “지난 주에 대법원은 동성애자들에게는 건강보험 피부양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는 비참하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손 목사는 “코로나 때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코로나가 지나고 전 세계 각국, 특히 독일이나 미국 등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감염병 때라도 종교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제한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판결도 (우리 법원은)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법을 통해 시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사법부조차 이런 시각이라면 이 나라가 전체주의 국가가 무엇이 다른겠냐”라며 “우리는 앞으로 감염병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라고 했다.

또한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정부의 말한 마디에 문을 닫은 것도 관점에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 이유라고 본다”며 “만약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투쟁했다면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겠었다. 이런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지켜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인터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 >> 3면

[인터뷰] 월드씨앗나라 서병우 대표 >> 7면

이선종 목사의 “찬양자의 마음 조율” >> 22면

광고와 자연을 품다
선착순 특별혜택 마지막 기회!
전세대 전용 82㎡타입 구성

계약금 천만원 | 중도금 무이자 | 무제한 전매가능 | 주민창고 제공 | 에어컨 3개소 무상

광고의 새로운 중심에서 탄생하는
원천역을 품은 신개념 주거단지

- 눈부신 미래비전 가치**
 - 반도체 메카 클러스터 3대 거점의 중심
 - 삼성디지털시티 확장 및 개발사업
 - 삼성디지털시티, 광고테크노밸리 등 직주근접 프리미엄
- 힐링 자연의 가치**
 - 약 150만평 자연친화적 영종송공원을 앞마당처럼 누리는 숲세권
 -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광고 호수공원의 힐링 라이프
- 시티라이프 프리미엄 가치**
 - e편한세상이 만든 트렌디한 신개념 주거단지
 - 주민 건강 라이프 스타일 위해 피트니스 공간 및 어린이 육아방 운영(예정)
- 역세권 및 사통팔달 교통가치**
 -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원천역 개통(예정) 개발호재
 - 경부/영동/용서고속도로 인접
 - 수인분당선(청량역), 신분당선(광교중앙역) 등 우수한 교통환경
- 편리한 생활인프라 가치**
 - 쇼핑, 문화, 행정 등 광고신도시의 생활 인프라 풍부
 - 경기도청, 법원, 영등구청과 같은 공공기관이 위치하여 편리한 생활환경
- 브랜드 프리미엄가치**
 - DL 건설의 e편한세상 브랜드 프리미엄
 - 전세대 주민창고 제공
 - 전세대 4Bay 판상형 구조로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 구성

문의 031.205.1870 e편한세상 시티 광고 웰스하임